

몇 가지 재배조건이 분화용 갯까지수염(*Lysimachia mauritiana* Lam.)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

정은아¹⁾, 전기범¹⁾, 이재효¹⁾, 최혜민¹⁾, 문상아¹⁾, 연수호²⁾, 이승연³⁾, 권순태^{1)*}, 이철희^{2)*}

¹⁾안동대학교 원예육종학과, ²⁾충북대학교 축산·원예·식품공학부 생물건강소재산업화사업단,

³⁾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

Effect of Several Cultivation on Growth of *Lysimachia mauritiana* Lam. as Potted Plant

Eun-ah Jeong¹⁾, Ki-beom Jeon¹⁾, Jae-hyo Lee¹⁾, Hye-min Choi¹⁾, Sang-a Moon¹⁾, Su Ho Yeon²⁾, Seong Yeon Lee³⁾, Soon-tae Kwon^{1)*} and Cheol Hee Lee^{2)*}

¹⁾Dept. of Horticulture and Breeding, Andong National University, Andong 36729, Korea, ²⁾Brain Korea 21 Center for Bio-Resource Development, Division of Animal, Horticultural, and Food Sciences, Chungbuk National University, Cheongju 28644, Korea, ³⁾Useful Plant Resources Center, Korea National Arboretum, Yangpyeong 12519, Korea

본 연구는 관상식물인 갯까지수염의 분화용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. 종자를 이용하여 육묘된 유묘를 사용하여 분화용 포트의 크기, 상토 혼합조성, 기비처리, 유묘의 소질 등의 이식조건과 주비농도, 차광정도, 왜화제 및 적심처리 등의 재배, 관리조건에 대한 생육효과를 2017년 7월 31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10주간 조사하였다. 갯까지수염의 분화용 재배를 위해서, 피트모스:펄라이트(3:1) 혼합 용토에 300–200–200 mg□⁻¹(N–P–K)의 비료분을 첨가한 토양을 이색칼라 10호 화분에 충진하여 코트비료 10알을 기비로 시비하고, 200구 트레이에 셀당 2립씩 파종된 묘를 이식묘로 사용하는 것이 갯까지수염의 생육에 가장 효과적이었다. 재배 및 관리방법으로는 차광처리는 하지 않고 재배하는 것이 생육에 좋으며, 250 mg□ L⁻¹ hyponex를 준비하고 왜화제로 500 mg□⁻¹ daminozide를 처리하는 것이 갯까지수염의 분화재배에 적합하였다. 또한, 재배기간이 10주 정도일 때는 적심을 하지 않는 것이 분화용 생산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.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활용성을 가진 야생 초화류의 이용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대량생산 방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

(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“야생화 산업화를 위한 활용도 다양화, 연중재배 및 개화조절 기술 개발, KNA 17-C-38”의 사업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.)

주요어: 야생화, 관상식물, 분화식물, 혼합상토, 왜화제

T. 043-261-2526, leech@chungbuk.ac.kr